

때 놓치면 남는 건



7월 6일(목) 14시 민주노총 안산지부 회의실에서 2017년 11차 집단교섭이 열렸다. 사용자측 8개 사 15명, 노동조합은 9개 사 46명이 참가했다.

1만원 내고 축소교섭?

사측은 4.13 상견례 후 6차 교섭(6.1)에서 처음 제시안을 냈다. 임금은 8개사 모두 안을 안 냈다. 공동요구안 중 공민권 관련 제시안은 요구안 수준보다 훨씬 상회하는 단협을 가진 사업장들이 다수임에도 요구의 취지에 한참 미달하는 안을 냈다. 산재은폐 방지 및 재해자 보호 요구에 관해서는 ‘노조 참여와 노사공동 노력’이라는 요구안의 취지와 동떨어진 상투적인 안을 냈다.

9차 교섭(6.22)에는 **대원산업(6만), 에스제이엠(3만5천), 주연테크(2만)**에서만 임금 안을 냈다.

10차 교섭(6.29)에서 회사는 추가 안 없이 ‘차기에 공동요구안에 관한 의견을 좁히기 위해 축소교섭을 하자’고 했다. 지부는 임금 미제시 사업장이 제시안을 내고, 공동요구안에 관해서도 간단명료한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백뿐인 안을 들고 축소교섭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늘 11차 교섭에서 **계양전기와 신한벌브**가 처음으로 임금 안을 냈다. **기본금 1만원 인상**이다. 대원산업은 1차 제시안과 마찬가지로 6만원 인상, 에스제이엠은 7천원 오른 4만2천원, 주연테크는 5천원 오른 2만5천원 인상안을 냈다.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제시안이 7천원이다. 기본금으로 따지면 8만원이 넘는 인상안이다. 사측은 다시 한 번 “임금은 각사별 추가 안을 낼 것이니 공동요구안으로 축소교섭을 하자”고 주장했다.

회사 의지 확인했다

교섭위원들은 “우리가 언제 임금과 공동요구안 나눠서 교섭했다. 만원 내놓고 임금은 사업장별 알아서 하자는 얘기는 교섭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사측이 임금과 공동요구를 분리하는 작전을 펴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축소교섭은 매년 교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합의안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결단하기 위해 해왔다. 집단교섭은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임금과 공동요구안을 같이 정리했고, 객관적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있다면 지부가 양해해왔다.

지부는 4월 교섭 시작부터 줄곧 휴가 전 타결을 요청했다. 올 해는 사업장마다 임금교섭만 있고, 공동요구안도 최소화해서 집단교섭 사업장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지도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다. 하지만 11차 교섭에서 정회를 거친 후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없었다. 사용자는 휴가 전에 마무리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때 놓치면 후회한다

지부는 차기 교섭까지 수용할 만한 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금속노조 전체일정 외에도 독자투쟁을 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단교섭 교란 사업장, 신생노조설립 투쟁에 힘을 집중할 것이다. 지난 6월 30일, 중앙교섭·집단교섭·대각선사업장 전체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85.7%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부에서는 대창, 말레동현 화성, 코리아에프티 등 대각선 사업장들이 동시에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무슨 일이든 적당한 때가 있다. 농사도 때를 놓치면 고생은 더 하고 수확은 적어지는 법이다. 남는 건 후회다. 차기 교섭까지 휴가 전 타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12차 교섭은 7월 13일(목) 14시 안산지부에서 열린다.**

우리는 언제나 담을 넘는다



에스제이엠지회는 전국을 종횡무진 누빈다. 2017년 지회 교섭위원들은 중앙교섭이 열리는 화요일 교섭위원 활동시간을 활용해 노동자시민의 투쟁 역사를 되새기고, 전국에 투쟁하는 민중들과 연대하는 사업계획을 세웠다. 매년 화요일에 안산지역에서 진행되는 공동실천이 올 해는 목요일로 옮겨져서, 화요일에는 에스제이엠 만의 스타일로 ‘협력필승’ 정신을 실현 중이다.

5월에는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되새겼다.(왼쪽 제일 위 사진) 6월엔 성주 소성리 마을에서 사드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응원하고 왔다.(왼쪽 아래 2개 사진) 김해중 법규부장은 “사드만 아니었다면 산 좋고 물 좋은 여느 시골마을과 다르지 않았을 소성리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어르신들이 고생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건강이 걱정된다. 그래도 즐기면서 투쟁하는 얼굴들을 보니 안심도 된다. 어느 투쟁이든 마찬가지로겠지만, 몇몇이 아닌 모두가 함께 한다면 원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교섭위원들은 돌아가며 조를 짜서 교섭에 참가하고, 연대활동을 한다. 소감을 묻자 “운전해서 오가는데 시간 다 보내고 하루가 후딱 간다” “얼마나 멀리 갈 지는 북북북”이라며 웃는다. 교섭위원들 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연대도 이어진다. 6월 중순에는 희망조 조합원들이 올 해 1월 문자해고를 하고 부당해고 판결에도 회사가 버티고 있는 인천의 동광기연에 지지방문을 다녀왔다.

에스제이엠 조합원들은 오는 7월 26일 가평으로 전조합원 수련회를 떠난다. 5년 전 직장폐쇄 투쟁 승리의 정신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 매 년 진행하고 있다.

5년 전 공장 담벼락 밖 광폭행보로 맺은 투쟁의 결실은 오늘도 담벼락을 넘어 시대와 호흡하는 노동조합활동으로 에스제이엠에 살아 숨 쉰다.

뽕뽕한 응원 고맙습니다!



신생 현대모비스화성지회의 첫 체육대회가 7월 1일 열렸다. 전조합원이 모여 서로의 얼굴과 조직력을 확인하고, 그 힘으로 교섭과 현장투쟁을 대차게 펼치기 위해 준비한 체육대회였다. 설립 한 달, 한 여름 무더위, 사측의 업체변경 공격 등으로 걱정이 많았지만, 조합원과 가족, 지부 각 사업장 등 400명 넘게 모여 신나게 즐겼다. “하늘이 돕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행사 내내 구름이 해를 가렸고, 첫 체육대회라는 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준비한 일들이 착착 진행됐다.

가족들은 “노조 행사는 지겨울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와서 신나게 놀고,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다”고 했다. 지부 각 사업장들도 푸짐한 경품을 들고 왔다. 모든 일정을 마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려던 단비가 마치 우리를 위해 기다려준 것 같았다. 우리도 회사도, 지회의 막강한 조직력을 제대로 확인한 날이었다.

체육대회 직후 교섭에서 노사는 교섭원칙(주 1회 사내 교섭 등), 지수사의 임시전임과 교섭위원 활동시간 등에 합의했다. 업체변경으로 흔들기를 시도했던 한 업체에서도 고용보장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장의 사과도 받아냈다. “선배님들의 뽕뽕한 응원 정말 고맙습니다!”